인도 — 엔론의 다브홀 발전소 준공과 사업전환 계획

1. 준공된 발전소와 터무니없는 전기요금

1992년에 미국의 엔론 코퍼레이션은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州)의 다브홀에 30억 달러 짜리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발전소는 엔론의 성공적인 인도진출의 상징물이었다. 천연가스와 나프타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일뿐만 아니라 인도의 산업 중심부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엔론은 아세아 대륙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전력사업자로서 위치를 다지게 되는 것이다. 엔론은 인도 전력생산에 100억달러를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다브홀은 카우보이식 운용스타일과 현지 정치인들의 기행(奇行)으로 시초부터 논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부패에서 문화적 무감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이 회사를 혹평하였다. 그리고 2000년 발전소가 준공되었을 때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현지 전력사업체에 판매하게 되는—의 가격은 현지 거래가격의 네 배가 되었다. 마하라슈트라 주(州) 공무원들은 당초에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미국 달러로 지불할 것에 합의하였는데 당시에는 루피화의 가치하락과 석유가격의 상승을 예견하지 못했었다. 이제 이들 요인에 엔론의 투자에 대한 추정치 30% 수익률이 합쳐져 현지 전력당국에 파산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주 공무원들은 계약의 재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엔론은 계약이 공정하며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도에서의 이 회사에 대한 평판은 누더기 옷처럼 철저하게 손상되었다.

2. 전력교역 사업을 위한 로비 전개

이제 엔론이 인도에서 발전소를 더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엔론이 이 나라에서 떠나려는 이유는 아니다. 최근 들어 엔론은 발전사업에서 전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하고 교역하는 쪽으로 사업영역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거대기업은 900억달러에 이르는 수입의 3분의 1은 전력교역에서 얻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엔론은 성공적으로 메가와트 수준의 교역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규제완화를 얻기 위하여 로비를 수행하였다. 이제 인도에서도 전력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전력교역은 인도에서 엔론의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또한 이 나라의 고질적인 전력부족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엔론 인디아의 산자이 바트나가 회장은 전력시장의 개설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전력을 수송함으로써 첫 두 해만으로도 인도의 발전설비 용량을 300만kW 추가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인도가 무질서한 전력 그리드를 오버홀(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정비) 한다면 전력교역의 편익이 당연히 커질 것이다. 바트나가 회장은 공식적인 승인을 얻으면 엔론은 3 내지 6개월 이내에 전력교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3. 도전(盜電)과 농민에 대한 무상공급

전력 공급력의 확장은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을 현재의 6% 내지 8%로 유지시키려면 인도는 매년 1000만kW의 새 발전설비 용량을 필요로 한다. 이 나라는 현재 9000만kW의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으나 이의 대부분은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도전당하거나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저 공급되고 있다. 그 결과 주(州)소유 전력사업체들은 연간 약 42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인구의 3분의 2만이 전력을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마저도 간헐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도의 하이테크산업

의 심장부인 방갈로르에서 조차도 매일 주파수 및 전압강하(브라운아웃)를 겪고 있다.

규제완화는 충분히 궁지를 벗어나도록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엔론은 인도의 1910년도 전기법의 새 초안을 만드는데 있어 정부를 도울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의 하나임이 밝혀졌다. 왜 뉴델리당국은 인도에서 그렇게 매도당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가? 왜냐 하면 엔론의 전력교역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에는 경쟁자가 없으며, 인도는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절박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2001년 1월에 법으로 공포될 계획이며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해서 민간 전력교역을 허용하는—엔론이 사업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모든—조항은 삽입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엔론의 재도전 전략〉

- 엔론은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최근에 준공시킨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하여 청구한 높은 요금문제로 인도 당국과 분쟁중에 있다.
- 엔론은 인도에서는 더 이상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계획중인 전력산업의 규제 완화하에서는 합법적인 전력교역 사업을 영위하게 될 전망이다.
- 만일 엔론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새로 규제 완화되는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력이 부족한 이 나라에 신뢰성 있는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엔론에 대한 현지의 평판을 회복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4. 전기법 개정에 엔론이 참여

단기적으로 볼 때 성공은 결코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는 제자리를 잡는데 5년이 소요된다. 인도는 전력 그리드를 통합하여 전력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은 또한 많은 투자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레이오프(해고)를 우려하는 노동조합을 진정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전력회사들의 민영화를 설득시켜야 하며 그리고 농촌에 대한 보조를 단절하여야 한다.

인도에는 진정한 경쟁자가 없으므로 엔론은 때를 기다리며 그 동안 광대역 텔레콤 네트워크—네 개의 도시를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는 15,000 km의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교역사업을 추구할 수 있다. 만일 전력입법이 통과된다면 엔론은 새로 규제 완화된 시장에 처음 등장하는 기업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회사가 인도의 가정, 사무실 그리고 공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면 그의 이미지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료 : 「Business Week」, 2001. 1. 8)

미국—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와 크리스마스트리

1. 장식등을 꺼버린 크리스마스 트리

2000년 12월 5일 캘리포니아주의 퍼스트 레이디는 주(州)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조그만 아이가 점등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약 반시간 후에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 장식전등을 끄기 위하여 스위치를 내렸다. 이 주가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전력위기에 미국산 전나무에 달린 4,000여 개의 전등을 켠다는 것이 경솔한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다.

12월 7일에는 주(州)정부는 일찍이 발령한 적이 없는 "스테이지3" 전력부족 경보를 발하였다. 이것은 발전가능 용량의 98.5%가 소비되고 있어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한 시간씩의 계획정전을 시행하게 됨을 예고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절전을 촉구하는 것이다. 결국 그와 같은 정전사태까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것은 부분적으로 주정부가 600마일에 이르는 북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수로(水路)로 송수하는 거대한 펌프의 가동을 정지시켰기 때문이었으며 전력공급은 전연 여유가 없는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2000년에 캘리포니아는 시스템의 수요가 발전용량의 95%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스테이지2" 긴급사태를 30회 이상 발령하였다. 1999년의 스테이지2 긴급사태의 연간 기록은 4회였다.

2. "스테이지3" 전력부족 경보 발령

에어컨디셔너를 사용하여야 하는 캘리포니아의 여름철보다 통상적으로 연간 전력소비가 낮은 이 시기에 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는가? 첫째로 주(州) 발전용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발전소가 수리중이거나 또는 그 발전소가 배출한 오염물질이 해당연도의 허용한계에 도달하여 가동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몇몇 오염발생 발전소들도 이제 다시 가동에 들어갔으나 주정부는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전력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북쪽에 위치한 주(州)와 같이 일반적으로 잉여전력을 찾을 수 있는 지역들도 예년의 경우보다 잉여전력이 적었다. 미국 서북부는 한파의 내습으로 전력수요를 촉발시켰으며,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의 큰 댐들로 조성된 저수지들도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유별나게 수위가 낮아 수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폭등하여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도 이 연료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것을 단념시키고 있다.

3. 전력거래소(PX)의 가격 폭등: MWh당 $30에서 $1,400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州)는 1996년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을 때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州)의 경제활동의 붐은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아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다른 주(州)의 전력회사들과 전력을 교역하는 전력도매시장의 가격이 전례 없는 가격으로 치솟았다.

1년 전 시간당 약 30 달러이던 전력가격은 2000년 12월 14일의 캘리포니아 전력거래소(PX) 산정치로 MWh(MWh는 약 1,000호의 주택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당 1,400 달러에 이르렀다. 이것은 주(州)전력의 75%가 사용하는 그리드를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의 독립계통운용자(ISO)는 당시 캘리포니아의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좋은 가격으로 전력의 주외(州外) 수출을 촉진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12월 8일에 MWh당 $250의 가격 상한치를 철폐하였는데 이때 도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4. 조업중단·전력의 되팔기를 선택한 기업체

자체의 전력을 생산하거나 또는 그들 전력에 대하여 고정요금 지불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는 그리드에 이익을 남기면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워싱턴주에 있는 카이저 알루미늄은 전력을 알루미늄을 녹이는데 사용하는 것보다 전력을 되팔아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결론을 내린 후 400명의 종업원을 레이오프(일시 해고)시키고 수전한 전력을 큰 이익을 내면서 전력회사에 되팔고 있다.

그러나 높은 전력가격 때문에 전력회사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왜냐 하면 아직도 전력회사가 도매시장의 가격상승을 전기사용 고객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력회사들은 판매가격의 다섯 배나 주고 도매전력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채는 갑자기 불어나게 되었으며 몇몇 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은 이 주(州)의 가장 큰 전력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PG&E)과 사우슨 캘리포니아 에디슨(SCE) 2사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이것은 금융비용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그들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5. 로스앤젤레스는 별천지

12월 15일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도매전력에 대하여 MWh당 $150의 "소프트" 상한가를 설정함으로써 전력시장에 개입하였다. 이것은 전력공급자가 이 상한가보다 더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 자체적인 정당성을 제시하여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전력거래의 95%는 24시간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스폿마켓의 가장 난폭한 스윙을 줄이려는 시도인 것이다. 에너지성의 빌 리처드슨 장관은 FERC가 충분히 진취적이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데이비스 지사에게 있어서 전력위기는 지금까지 순탄하게 지나온 그의 재임기간 중 처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잔인한 비난을 몰고 왔다. 그는 충분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항의를 받았으며 이제 전체 전력산업에 대한 재규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정전이나 요금인상에 직면하지 않은 몇 안되는 지역의 하나인 로스앤젤레스는 몇 년 전에 경멸의 대상이었던 "유행감각에 뒤진" 수도·전기국(DWP) 덕택으로 선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서부 주(州)당국자들은 리처드슨 에너지장관에게 도매전력 요금의 상한치를 확고하게 견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전력회사들이 그들의 코스트를 전기사용 고객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는 휴가기간을 계획정전 없이 보낼 수 있다면 기쁠 것이다. 그러나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는 과거 10년간의 경제 붐으로 전력수요는 급속하게 상승하였으나 새 발전소를 별로 건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양초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Economist」, 2000. 12. 23.)

캘리포니아주 대형 전력회사들의 도산 위기

1. 캘리포니아는 미국경제의 13% 점유

캘리포니아 주(州)의 그레이 데이비스 지사에게는 크리스마스 휴가철이 휴가가 아니었다. 12월 26일에 주지사는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과 캘리포니아의 풀리지 않는 전력시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두 시간을 보냈으며 다음날에는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허물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식적인 주(州)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등의 전원을 끈 것이 연방정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면 그린스펀과 클린턴과의 회담이 결국 마지막 주의를 환기하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캘리포니아의 전력위기는 계획정전, 천정부지의 전기요금 그리고 주(州)에서 가장 큰 두 개 전력회사의 도산 위협 등을 수반하였으며 이제 이와 같은 위협은 골든 스테이트(캘리포니아주의 별칭)를 훨씬 벗어나 주외(州外)로 확산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미국의 경제는 캘리포니아가 되어 가는 대로 미국 전체가 따라가는 형국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점하고있다. 만일 캘리포니아의 혼란이 악화되면 이것은 명백히 현지경제에 손상을 입히게 되며 파급효과는 훨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매우 불안한 상황이며 이것은 통제로부터 퉁겨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에너지교역의 거대기업인 엔론 코퍼레이션의 케네스 레이 회장은 말한다. 그는 "이것은 캘리포니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전체에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파괴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2. 전력회사의 과다지불 도매전력요금의 환불소송

캘리포니아의 이 위기는 빠른 속도로 절정에 이르고 있다. 2000년 12월 27일에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사우슨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은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FER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것은 발전사업자에게 과다지불을 강요받은 49억달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이 전력회사는 말한다. 이 회사는 2001년 1월 5일까지 판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PG&E)사 또한 46억달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27일에 이들 두 전력회사는 캘리포니아 주 공익사업위원회(PUC)에 소매 전기요금의 30% 인상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사용 고객들을 격분시키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전기회사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전력회사들을 위한 베일아웃(기업구제 긴급조치)과 유사한 어떤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인 큰 야망을 가진 데이비스 주지사에게는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1996년 캘리포니아의 획기적인 전력규제완화법—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입법으로서는 가장 포괄적인—으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및 정책적인 악몽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업용 전기사용자들은 그들의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 중의 하나라고 불평하여 왔다. 규제완화는 발전시장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낮은 요금과 보다 좋은 서비스를 약속하였었다.

3. 이해당사자 집단들의 주장 반영

그러나 결과적으로 입법은 타협과 망가지기 쉬운 정치적인 제휴로 쓰러지려하는 탑의 모양이 되었다. 이 입법은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을 당시 공화당출신 페테 윌슨 지사와, 소비자 그룹들은 전력회사들과 그리고 기존 전력회사들은 새로 등장한 경쟁적인 민간부문 발전사업자들과 서로 맞붙게 만들었다. 윌슨 지사와 독립발전사업자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유시장체제로 전환되기를 원하였다. 기존 전력회사들은 발전소 투자에 대한 보상을 원하였다. 소비자 그룹들은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보장조항을 원하였다.

이들 당사자들은 무엇인가 모두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전력정책은 자유시장원리와 지시와 통제의 규칙 중 가장 나쁜 조합물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이것은 잘못된 제도(制度) 설계에 의해서 초래된 위기이다"라고 케임브리지 에너지 리서치 어드바이저스의 전력사업 컨설턴트인 로렌스 J. 마코비치는 말한다. "입법자들이 전력부족을 초래하였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입법자들은 몬스터(괴물)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이제 뒤돌아보면 이 제도의 가장 큰 결함은 캘리포니아의 기존 전력회사들이 그들의 많은 발전설비를 민간부문 회사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계획의 일부로서 기존 전력회사들은 그들의 전기사용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 전량을 새로 구성된 주(州)가 관리하는 그러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력거래소(PX)라는 기관을 통해서 일일 기준으로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일일 기준은 전기사용 고객들을 발전소 건설의 실패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며 이는 과거에 장기적인 전력공급계약이 전기요금을 상승시켰음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4. 새로운 발전소건설의 중단

그러나 전체 시스템은 호의적이 아닌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전력의 일일구매로 인해 기존의 전력회사들은 시장의 모든 변화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규제당국자들과 캘리포니아의 새 제도를 검토한 기타 인사들은 이와 같이 시스템은 최후의 순간에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시장은 전력 생산자에게 전력 판매를 억제함으로써 광란의 구매를 조장하여 가격을 치솟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었다고 말한다. 주(州)의 새로운 발전사업자들(5~6개의 독립발전사업자 그리고 인근 주(州)의 전력회사들로서 이들 많은 업체들은 오래된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들로부터 발전소를 구입하였다)은 그들이 전력판매를 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어느 것이 진실이든지 간에 이 세트업(새로 구축한 메커니즘)은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들을 황폐화시켜 버렸다. "너무나 많은 전력이 가능한 가장 높은 가격인 마지막 순간에 구매되고 있다"라고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캘리포니아에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디너지 사(社)의 대정부 담당 부사장인 린 레디케씨는 말한다.

최후의 순간 구매는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완전무결한 폭풍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많은 다른 상황들이 집중되어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것을 거든다. 규제완화 몇 년 전에 전력회사들과 주(州) 규제당국은 주(州)가 새 발전소를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리고 만일 새 발전소가 필요하다면 누가 그것을 건설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장황하게 논쟁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하이테크 붐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려는 때에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은 좌초되어 정지되어 버렸다.

5. 전력거래소(PX)와 독립계통운용자(ISO)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환경규정도 또한 한 몫을 하였다. 캘리포니아의 에너지규제당국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를 선호하여 건설비는 저렴하나 비교적 높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금지시켰다. 더욱이 최근에는 파이프라인 산업의 합병과 전국적인 공급 부족이 맞물려 이제 이 나라의 지배적인 연료자원인 천연가스의 가격을 하늘높이 치솟게 만들었다. 또한 환경부문 허가의 엄격한 발급과정과 현지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는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기가 가장 어려운 주(州)로 만들었다고 산업계 경영자들은 말한다. 최근의 전력부족 위기속에서도 몇 개소의 새 발전소 건설이 제의되었으나 현지의 항의로 짓눌려 찌부러뜨려지고 있다.

마치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캘리포니아 입법은 규제권의 많은 부분을 현지 공직자들로부터 떼어내고 주(州)전력시스템을 연방당국과 새로 생긴 두 개의 기관인 전력거래소(PX)와 주의 송전선로에 대한 항공운항 통제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계통운용자(ISO)라는 곳으로 넘겨준다. 각각의 이들 기구는 대부분 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도록 하는 무위(無爲)와 빈번한 정책의 변경을 초래하였다.

6. 소매 전기요금 동결의 의미

전체적인 시스템은 기존 전력회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폭발하였다. 캘리포니아 입법을 위한 논쟁기간 동안 기존 전력회사들은 규제시대에 그들이 건설한 수십억 달러어치의 발전소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보상을 상환하기 위하여 도매전력 요금이 내려가면 이들은 개방된 시장의 전력요금과 그들이 고객들로부터 수금하는 요금의 차액을 얻음으로써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입법은 이 주(州)의 전기사용 고객들에 대한 전기요금을 동결시켰다.

처음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의 고삐가 풀리기 전까지는 그들의 생각처럼 잘 작동되었다. 그러나 이 가격이 치솟았을 때 기존 전력회사들은 고객들로부터 수금하는 요금을 인상시킬 수가 없었다. 이제 PG&E 코퍼레이션과 에디슨은 그들이 전력소비 고객들을 위하여 구입했다가 완전히 보상받지 못한 95억달러 값어치의 전력으로 인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때늦은 임시변통 조치

때늦은 조치가 취해졌다. 주간(州間) 전력의 이동을 규제하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12월 15일,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들과 발전사업자들은 주(州) 전력 수요분의 95%

까지에 대하여 장기간의 계약 협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주(州)당국도 또한 새로운 발전소를 빨리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력요금이 올라간 것도 발전소 건설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분명히 데이비스 주지사에게는 정치적인 악몽이며, 이 나라의 나머지 주(州)들에 대하여는 어렴풋이 위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에너지 위기의 구멍을 틀어막는 임시변통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구멍에 마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왜 캘리포니아주에 전력위기가 발생하였는가?〉

- 주(州) 규제당국은 전력회사들로 하여금 많은 발전소를 매각토록 함으로써 경제 호황으로 전력수요의 증가가 유발되었을 때 전력회사들이 높은 도매전력가격에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 전력회사들과 주(州) 정부당국은 전력수요상정과 누가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하다가 발전소 건설을 지연시켰고 이것이 전력공급능력 부족을 심화시켰다.
- 환경적인 규제가 강한 주(州)로서 발전에 천연가스에의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요증가와 유가상승은 천연가스의 가격도 상승시켜버렸다.
- 입법자들과 전력회사들은 도매전력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제 전력회사들은 고객에 대한 소매전력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를 도산시킬 만큼 큰 수십억달러의 손실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혼란상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무슨 조치를 취하였는가?〉

- 연방 규제당국은 주(州)의 수요전력 중 95%를 장기예약에 의해서 구매토록 함으로써 도매전력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 주(州) 규제당국은 새 발전소에 대하여 패스트-트랙 승인을 발급토록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2001년 안에 여섯 개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소비자에 대한 전기요금의 인상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주(州)의 가장 큰 2개 전력회사들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한다.

(자료: 「Business Week」, 2001. 1. 8.)

캘리포니아주 전력위기와 해결방안의 요소들

1. 두 개 전력회사의 채무액 : 100억 달러 초과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최근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저녁뉴스의 일기예보 시간에 보도되고 있는 연속적인 전력 "비상사태"발령을 견뎌내고 있다. 주(州)의 거대 전력 2사인 사우슨 캘리포니아 에디슨(SCE)과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PG&E)은 최근 몇 개월간 그들이 전기사용 고객들에게 소매 판매하는데 법적 허용 요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도매전력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가장 최근의 계산으로 그들은 100억달러가 넘는 채무를 떠 안고 있다. 신용등급 평가기관은 이들 전력회사들이 며칠 내에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데이비스씨는 2001년 1월 8일에 행한 "주(州) 현황보고" 연설의 대부분을 전력위기문제에 할애하였다. 그는 전력마케팅 회사들을 공격하면서 극도로 흥분하였으며 그들을 주외(州外)의 범법자들이라고 부르며 주(州)를 지역전력 교역시장에서 탈퇴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캘리포니아가 주외(州外)로부터 전력의 4분의 1을 얻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그는 또한 규제완화를 에너지 악몽 같은 상태를 만들어낸 "위험천만하고 엄청난 실패"로 낙인을 찍었으며, 전력의 배분과 발전설비에 대해 주(州)정부의 통제에 대하여 떠들어댔다.

2. 전력위기 탈출을 위한 긴급 고위회담

결국 그의 연설은 전력위기를 개선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채권자들은 주(州)지사가 전력회사들을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언급에 환영을 표했으나, 채권자들은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고 말한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신용조사기관은 "주지사의 메시지는 전력회사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건설적인 해답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망설이지 않는 데이비스씨는 다음날 긴급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에너지성 빌 리처드슨 장관과 재무성 래리 서머스 장관 그리고 주지사의 보좌관들이 전력회사들과 캘리포니아에 대한 주요 전력공급자들이 무언가 절충을 도출하기 위하여 특별긴급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최종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실무자급 인사들은 협의를 계속하게 되며 주말에 최종적인 협약을 위하여 거물급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단계별 해결방안의 요소들

어떤 해결방안에도 몇 개의 문제들을 내포하게 된다. 첫번째로 전력회사들은 그들에게 누적된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한다. 어떤 브리징(가교) 어레인지먼트는 그것이 채무자들로부터의 차관형식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기대하는 수입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간에 이것은 유동성의 즉각적인 위기를 지연시키고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급자들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스폿시장을 통해서 구입하는 대신에 장기계약에 의한 고정가격의 전력공급에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기적(中期的)으로는 전력회사의 계산서를 누가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캘리포니아의 전기사용 고객들이 그 중의 일부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요금을 더 인상하여 그것을 유권자인 전기사용 고객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싫어한다. 끈덕지게 따라 다니며 괴롭히는 전력회사의 주주들은 더욱 매질을 하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연방정부에 의한 베일아웃(긴급구조)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前) 정부는 전력을 "매력적인 고정된 가격"으로 발전회사들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새 행정부는 부시후보에 대항해서 투표했으며 호의적이지 않았던 캘리포니아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주정부는 자체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이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모두 믿고 있다. 텍사스 출신의 강력한 공화당소속 하원의원 필 그람씨는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이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어떤 노력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4. 캘리포니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곤경

세번째 조치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서, 캘리포니아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통과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규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FERC)의 제임스 훼커 위원장은 "우리는 공급력 부족상태에서 캘리포니아에게 '가격 상한치'를 설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발전사업자들은 산업계의 역사적인 성과를 극적으로 훨씬 앞질러서 미래의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통명스럽게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일을 바로 잡는 데에는 "일정 기간—캘리포니아의 경우, 3내지 5년간의—에 걸쳐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여 말한다.

이것은 현명한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책임 없는 정치가들과 규제당국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왜냐 하면 훼커씨는 그들의 곤경을 단숨에 해결해줄 수 있는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은 기사(騎士)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그는 캘리포니아의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종류의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FERC의 어떤 다른 위원들보다 더 동정적이다. 그러나 1월 10일에 훼커씨는 사임하였다. 이제 캘리포니아만이 이 곤경으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빠져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명명백백하게 된 것이다. ■

(자료: 「Economist」, 2001. 1. 13)